

중국의 해외투자 정책과 중국자본 유치의 전제조건

China's Global Investment Policy and Precondition for China Money FDI in Korea

박문서(Moon-Suh Park)

호원대학교 무역경영학부 교수(주저자)

김미정(Mea-Jung Kim)

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조교수(교신저자)

목 차

I. 서 론	IV. 결 론
II. 중국의 해외투자 정책 분석	참고문헌
III. 중국자본 유치전략의 전제조건	Abstract

국문초록

본 논문은 한중 양국의 FDI 관련 현황과 정책적 강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중국자본 유치전략에서 요구되는 기본적 전제조건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중국자본 유치에 도움이 되는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연구목적을 둔다. 연구결과 도출된 주요 전제조건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중간 경제관계는 상호보완적이고도 협력적인 수준에 크게 미흡한 상태이므로 무조건적 경쟁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위협요인들을 미리 제거하고, 양국간 신뢰관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둘째, 적어도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발효된 한미FTA 등 한국의 FTA 확대 기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을 대신하는 중국의 대체투자처는 항상 존재하고 있으므로, 투자종목이나 투자규모, 투자방식 등 중국자본 유치에 관련된 투자 협상력은 상당 부분 중국측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넷째, 한국의 FDI 정책이 기존의 정책적 프레임 속에 갇혀 규칙 파괴자(rule breaker)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중국자본 유치는 노력에 비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섯째, 중국을 과대평가하거나 중국자본의 힘을 맹신하는 상황에서 중국자본 유치 노력을 경주하다가 외형적 투자 또는 부실투자로 이어져 예기하지 못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주제어 : 중국자본, 외국인투자, FDI, 차이나 머니, 중화자본

* 본 논문은 지식경제부의 과제보고서(『중국자본 유치 전략』, 2010.12.30)의 일부분을 발췌하여 발전시켰음.

I. 서론

한반도 주변의 이웃나라 일본이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이미지로 한국인에 각인되어 있다 면, 똑같은 이웃나라 중국은 ‘가깝지만 알 수 없는 나라’로 각인되어 있다. 또한 중국은 이아가 많은 나라이어서 더욱 그 속을 알아내기 어렵다. 중국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욱 모르는 나라가 바로 중국인 것이다.

중국은 상상을 초월한 경제성장으로 이제 세계 경제의 중심국으로 우뚝 서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미국에 비교할 정도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글로벌 무대에서 요구하는 각종 정책 및 전략의 수립·실행 과정에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중국의 해외투자 정책과 중국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손자의 ‘적을 알고 자기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아니하다’(知彼知己, 百戰不殆)는 병법 중에서 ‘상대를 아는 일’에 해당한다.

2008년 불어 닥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세계 주요국들의 경제적 위협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성장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으며, 고성장 정책 포기에도 불구하고 이후 세계경기가 회복된다면 중국의 성장률은 8~9%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한국의 대중국 투자 유치 활동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2010년 상하이 엑스포를 계기로 중국의 경제적·비경제적 영향력은 급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세계의 생산기지 역할의 원천이었던 단순 제조업 차원을 넘어 우주항공산업, 원전, 고속철도 등 첨단산업 부분의 산업 중무장을 통해 글로벌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영향력 강화에 대해 세계는 중국의 경제인해전술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한국 역시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중국의 직접적 영향권에 놓여 있으므로 중국의 산업중무장 및 경제인해전술에 대해 그 어떤 나라보다도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의 무역도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하여 2010년도 말에 한국 수출 세계 7위의 자리를 차지하였고, 2011년도 말에는 무역 1조 달러 달성으로 이제 ‘수출 1조 달러’ 또는 ‘무역 2조 달러’ 달성의 목표를 새로이 설정하고 매진해야 할 상황이다. ‘특히 수출 1조 달러’ 달성이라는 새로운 목표는 한국경제의 제반 상황을 감안할 때 매우 장엄하고도 벅찬 여정이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제 한국은 한중 FTA 협상을 두고 중국과 경제대전 한 판을 준비해야 할 상황이다. 한국

무역의 2조 달러 달성을 준비하는 마당에서 중국과의 새로운 경제협력의 형태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FDI 분야에 대한 연구와 중국자본유치환경 분석을 통하여 중국자본 유치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중 양국의 FDI 관련 현황과 정책적 강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중국 자본 유치 전략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전제조건을 검토함으로써 중국자본 유치에 도움이 되는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연구의 범위와 내용적 측면에서는 간접투자 현황 분석을 통한 대응전략수립을 제외하고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영역을 중심으로 분석하되, 비교적 최근 투자동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2005년 이후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시간적 범위를 설정해두고 중국자본 유치 전략을 모색하기로 한다.

II. 중국의 해외투자 정책 분석

1. 중국의 해외투자 정책

1) 중국의 해외투자 동기

중국의 해외투자 동기는 일반적으로 해외 자원개발, 외국의 기술습득, 자국기업의 브랜드 강화 및 사업다각화 등 4개 분야에서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은 해외투자 동기에서 본다면 중국은 다른 나라와의 차별적인 동기를 찾을 수 없으나 속사정은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다. 즉, 넘치는 투자재원 소화, 국내 고용문제 해소, 미국에 버금가는 세계 강대국 지위 확보를 위한 장기적 차원의 준비 등 또 다른 속사정들이 잠재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동기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역흑자와 외환보유고 증가에 따른 무역장벽 회피 필요성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중국기업의 해외진출(走出去) 정책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둘째, 중국 내수시장의 공급과잉과 경쟁심화이다. 외자기업들의 중국 내 FDI 투자 확대로 생산력이 증대될수록 중국내의 공급과잉 현상은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해외진출을 통해 완화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셋째, 일부 기업 및 기업가들의 해외시장 진출 노력이 크게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역시 글로벌 무대에서의 경험이 축적되기 시작하였고, 과거의 폐쇄적 기업활동 패턴이 세계무

대로 그 중심이 옮겨지면서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2조 달러를 상회하는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활용하여 성장세가 꺾이는 중국 국영기업의 활동무대를 글로벌 무대로 옮겨준다는 다각적인 목표에서이다. 중국의 국영기업들은 막대한 외환보유고에 힘입어 자금력 우위를 무기삼아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글로벌 기업 및 개도국의 현지기업을 압도하고 있다. 이 때문에 브라질 등 개도국들은 중국을 자국에 대한 투자국임에도 불구하고 동맹국이 아닌 경쟁국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중남미 지역국들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들의 취약한 이념의 틈새를 넘어 진출하고 있으며, 베네수엘라 및 쿠바에 대해서는 군사적 지원까지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해외시장에 대한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중국은 2010년 들어 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투자를 크게 확대하고 있다. 2010년 상반기 중국의 대 브라질 투자규모는 20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이 그 동안 브라질에 투자한 전체 액수의 10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이와 같은 추세를 볼 때 중국은 2009년 29위에 불과하던 대 브라질 투자국이었으나 2010년에는 최대 투자국으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중국이 해외투자를 크게 확대하는 것은 단순히 중국의 제조업 가동을 위한 자원 확보 차원을 벗어나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의 이미지와 정치적 영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전략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 1〉 중국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과정

기 간	단계	각 단계별 주요 내용
1979~1984년	시 작 단 계	○ 일부 국유 무역기업과 자원개발업체가 해외에 투자, 대표사무소나 사무처 등을 설립하여 국내 기업의 수출입 대행, 자원 개발 ○ 투자액 적고 업무 기능도 비교적 간단
1985~1991년	실 험 단 계	○ 국유 무역기업과 금융기관들이 해외에 판매 법인과 지점을 설립하여 판매망을 확보하고, 초보적인 판매 네트워크 형성
1992~2000년	확 대 단 계	○ 하이얼 등 우량 대기업이 해외에 생산기지와 수리 센터를 건립하고, 일부 대형 집체기업이 해외직접투자에 나섬 ○ 일정 규모의 생산기지 투자 네트워크 형성 시작
2001~2005년	가 속 화 단 계	○ 대형 우량 IT업체가 선진기술 확보를 위해 미국과 일본 등지에 R&D센터와 연구소 설립 ○ 국유상업은행과 투자신탁회사가 해외 주식시장 상장 시도하고 점포망 확장 시작 ○ 정부도 기업의 글로벌 전략을 적극 지원·장려하기 시작
2006 이후	조 직 화 단 계	○ “해외경제협력단지” 설립·확대

자료 : 김익수, “사들이는 중국, 팔리는 한국 : 중국기업의 글로벌화와 한국기업의 대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에세이 019, 2005, p. 27의 표 보완 ; KITA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전략 변화, 2008. 2, p. 2.

여섯째, 중국의 급격한 임금인상으로 중국 내에서의 사업이 더 이상 글로벌 경쟁력을 보장하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2010년 들어 중국내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이 20% 이상 오르거나 심지어 30%씩 인상한 기업도 있어 현지진출 기업들의 고용사정이 매우 어렵게 되었다. 이는 중국이 가장 빠르게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부문으로 판단되며, 궁극적으로 중국기업들로 하여금 해외진출로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의 해외진출 확대 과정은 투자맹아기, 국유기업위주 투자기, 민영기업 참여확대기, 조정기 및 장려기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¹⁾ 개혁개방 이후 저우추취 정책의 시행에 따라 중국의 해외투자 규모는 금액 및 건수 면에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조정기에 들어서면서 다소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중국 기업의 해외진출 과정을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 시작단계, 실험단계, 확대단계, 가속화단계 및 조직화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2) 중국의 해외투자 정책동향

해외투자의 주체라는 관점에서 중국은 2008년 홍콩에 전체 규모의 69.1% 해당하는 386억 달러를 투자하였다(플로 기준). 남아공에 대한 투자가 8.6%로 그 다음 순위를 보이고 있고, 버진아일랜드(3.8%) 및 호주(3.4%)에 대한 투자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스톡기준으로 보면 2008년 중국은 전체 해외투자의 63.0%에 해당하는 1,158억 달러 규모가 홍콩에 투자되었으며, 케이만군도, 버진아일랜드, 호주, 싱가포르 등이 그 다음의 순위를 보이고 있다. 2008년 중국의 해외투자 상위 20개국에 대한 투자현황을 플로 기준 및 스톡 기준으로 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중국의 해외투자 상위 20개국(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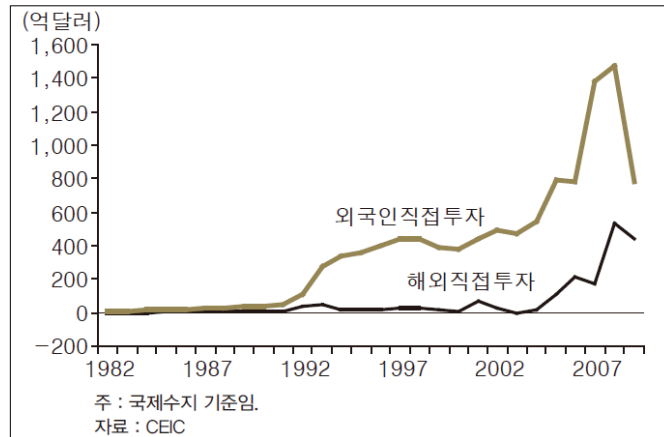
(단위 : 백만 USD, %)

〈Flow 기준〉				〈Stock 기준〉			
순위	국가명	금액	비중	순위	국가명	금액	비중
1	홍콩	38,640.30	69.1	1	홍콩	115,845.28	63.0
2	남아공	4,807.86	8.6	2	케이만군도	20,327.45	11.0
3	버진아일랜드	2,104.33	3.8	3	버진아일랜드	10,477.33	5.7
4	호주	1,892.15	3.4	4	호주	3,355.29	1.8
5	싱가포르	1,550.95	2.8	5	싱가포르	3,334.77	1.8
6	케이만군도	1,524.01	2.7	6	남아공	3,048.62	1.7
7	마카오	643.38	1.2	7	미국	2,389.90	1.3
8	카자흐스탄	496.43	0.9	8	러시아	1,838.28	1.0

1) 신호훈, “중국의 외자유치 및 해외투자 정책과 시사점”, 『금융연구』, 2007. 3, pp. 15-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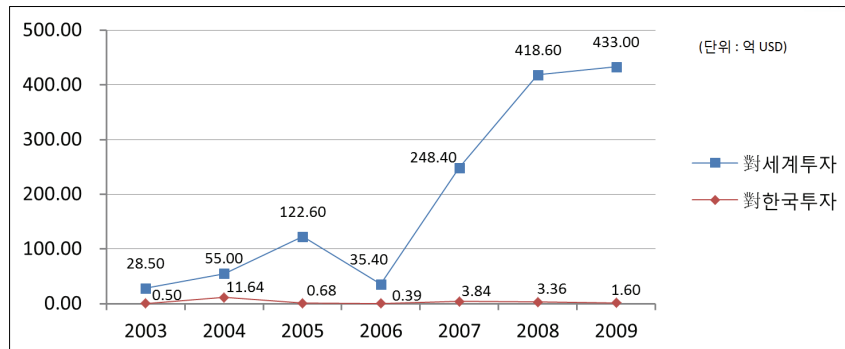
9	미	국	462.03	0.8	9	마	카	오	1,560.78	0.8
10	러	시	395.23	0.7	10	카	자	호	1,402.30	0.8
11	파	키	265.37	0.5	11	파	키	스	1,327.99	0.7
12	몽	골	238.61	0.4	12	캐	나	다	1,268.43	0.7
13	미	얀	232.53	0.4	13	몽	골		895.56	0.5
14	잠	비	213.97	0.4	14	한	국		850.34	0.5
15	캄	보	204.64	0.4	15	독	일		845.50	0.5
16	독	일	183.41	0.3	16	영	국		837.66	0.5
17	인	도	173.98	0.3	17	나	이	지	795.91	0.4
18	나	이	162.56	0.3	18	잠	비	아	651.33	0.4
19	아	랍	127.38	0.2	19	사	우	디	620.68	0.3
20	베	트	119.84	0.2	20	인	도	네	543.33	0.3
-		소계	54,438.96	97.4	-		소계		172,216.73	93.6
-		합계	55,907.17	100.0	-		합계		183,970.71	100.0

자료 : KOTRA(Invest Korea 투자조사연구팀), 「중국의 해외투자 동향 및 중국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 2010. 7. 12.



[그림 1] 중국의 외국인 및 해외직접투자 추이

세계의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1992년 이전까지는 매우 미미한 실적이나 1992년 이후부터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2007-2008년 정점을 이룬 뒤 감소세로 돌아선 상태에 있다.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역시 2004년까지는 별다른 특징을 보이지 못하다가 이후 2008년 감소세로 반전되기까지 뚜렷한 증가세를 보여 왔다. 또한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총액 가운데 한국에 대한 투자 총액은 그 비중이 매우 미미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자료 : KOTRA(2010)에서 재작성

[그림 2]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및 對한국 투자 총액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정책은 엄격한 심사 비준 및 감독과 외환감독 등으로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이후 중국정부는 2001년 3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된 10.5계획(2001-2005)에 ‘저우추취’(走出去) 전략을 포함하면서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나섰다.

10.5계획에 담긴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전략에는 보험, 외환, 재정과 세무, 인력, 법률 정보 서비스, 출입국 관리 등 기업의 해외진출 전략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체계를 수립하고 해외투자의 관리감독을 규범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중국의 해외투자는 과거 30여년 간 중국경제가 수출증대, 외환보유고 확대, 환율정책 및 그 심사비준 프로세스 완화, 그리고 대외투자전략의 시장지향성 등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중국의 해외투자는 독점 국유기업이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금융, 석유, 항공, 전력 등의 산업과 민영부문의 IT 및 가전산업 등에 집중되어 있다. 지역별로 볼 때 중국의 해외투자는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등을 비롯하여 자원이 풍부한 아프리카 및 호주 등의 국가들에 집중되어 있다.

중국정부의 해외투자 촉진 정책동향을 보면 중국정부는 WTO 가입 전인 1990년대 말부터 국내 산업조정을 실시하고 기업의 해외진출을 장려하기 시작하였으며, 1999년부터는 아시아 금융위기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수출을 확대하고 산업구조를 조정하기 위하여 ‘기업의 해외 내료가공 업무의 장려에 대한 의견’(關於鼓勵企業境外帶料加工裝配業務的意見, 1999. 2)을 공표하고 이에 관련된 조치를 실시해나갔다. 이는 중국기업의 ‘저우추취’(走出去)를 지원하는 초기단계로 평가되고 있다.

<표 3> 중국 정부의 기업 해외진출 장려 정책

조치	시기	내용
해외직접투자 통계 집계 시작(상무부)	2002~	-
동부 6개 성/시 해외투자 외환관리 개혁시범지역 지정(외환관리국)	2002. 10	○ 기업의 해외투자와 관련된 외환관리를 기업친화적인 방식으로 개편 ○ 저장, 장쑤, 상하이, 산둥, 광둥, 푸젠
해외진출 합작기업경영자적심외에 관한 긴급통지(상무부)	2003	○ 중국기업의 해외건설 수주 장려 ○ 노무합작관리 강화
해외투자기업 프로젝트 심사에 관한 통지	2004. 10	○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심사기관 중복으로 복잡했던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 - 해외직접투자 제한업종을 종래의 10개에서 5개로 축소 - 투자허가가 필요한 투자 대상국가나 지역의 숫자를 종래의 30개에서 9개로 축소
국가개발은행과 중국수출신용보험공사(中國出口信用保險公司), 전면적 협력 협정체결	2006. 2	○ 양대 대외투자 정책 금융기관이 체결한 최초 협의 ○ 양 기관이 자원 공유와 업무채널 확대 ○ 중장기 수출신용보험, 해외투자보험 등 업무영역의 협력 강화 계획(『中國企業報』(2006. 2. 13))
해외경제협력단지(境外經貿協力區) 설치 시작	2006	○ 해외경제협력단지 설치 허가, 장려
'서기동수'(西氣東輸)	2009~	○ 카스피해유전 개발 및 파이프 라인 공사

자료 : KITA,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전략 변화", 2008. 2, p. 2.

2002년 중공 제16대 및 2007년 중공 제17대 회의를 통하여 '해외투자'(走出去) 전략과 '투자유치'(引進來) 전략을 균형적으로 강조하면서 본격적인 '저우추취' 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이러한 중국의 해외투자 촉진 정책은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4단계 과정을 거쳐 발전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표 4> 중국의 해외투자 촉진정책

구분	기간	주요 내용
1단계 농산물, 광물 위주 자단계	1979-1988	○ 1978년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 이후 중국은 해외직접투자의 초기단계를 겪음. ○ 1979년부터 1985년까지 중국기업은 1차 산업 위주의 소규모 형태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해외투자도 농업 및 광업에 대한 투자가 전체 투자의 70% 이상 차지 ※ 해외투자 중 '1차 산업' 비중 : 79.3%(1984년) → 26.8%(1988년)
2단계 무역 및 업 위주 자단계	1989-1993	○ 중국의 산업적 전환기를 거치면서,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분야도 '농산물, 광물' 위주의 투자에서 수출입무역, 교통통신, 금융보험, 요식업, 여행업, 건설업, 의료 등 무역/서비스 투자 및 제조업, 자원개발 등의 해외투자도 진행됨. ※ 해외투자기업의 분야별 비중(1993년) : 무역형(24%), 생산형(19%), 요식/여행업(18%), 건설(16%), 금융보험(12%), 자원개발(5%)
3단계 해외투자 확대기만 마린 단계	1994-2000	○ 1990년대 중반 이후 적극적인 국제화 정책에 따라 중국의 '저우추취(走出去)' 정책이 1997년 제15차 중국인민대표회의 및 1998년 제15차 중국인민대표회의 이중전회(二中全會)에서 초기적으로 표현됨. ○ 또한, 2000년 3월 제9기 전인대에서 강택민 주석은 "중국이 국제경제경

			<p>쟁에 적극 참여하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우추취(走出去) 전략을 실행해야 하며, 인진라이(引進來) 전략과 긴밀히 연결하여 국내의 자원과 국내의 시장을 잘 이용할 것”을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을 배경으로 해외투자가 급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해외투자 산업범위도 자원개발, 가공무역, 상업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됨.
4단계	해외투자 본격화 단계	2001-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 가입 이후, 중국의 ‘저우추취(走出去)’ 정책의 본격적인 실시로 중국의 해외투자는 단기 조정 후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1년도 US\$ 69억 달러에 불과하던 해외투자액이 527% 증가하여 2009년 US\$ 433억 달러에 달함. ○ 국내 산업구조의 현대화적 개편에 따라 해외투자 대상 산업도 다각화됨. ○ 광업 비중이 15% 이상으로 단일 산업분야로는 비중이 가장 높고, 상업서비스, 금융, 도소매, 교통운수, 부동산 등 서비스업이 70% 이상 차지하며 서비스업 비중이 급증하는 추세

자료 : KOTRA, “중국의 해외투자 동향 및 중국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FDI Theme Report 10-007, 2010. 7. 12, pp. 32-33의 내용을 표로 작성함.

<표 5> 투자목적별 중국의 해외투자 주요 사례

투자목적	투자기업	인수대상	프로젝트 내용
자원개발	중국석유화학 (SINOPEC)	ADDAX (스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규모 : 75억 달러('09년) ○ Addax의 나이지리아, 가봉, 이라크 등 25개 원유 탐사개발구 25지구를 활용, 연간 1,000만톤 원유의 안정적 공급 가능해짐 ○ 중국의 자원분야 해외 M&A 중 역대 최대 규모
	중해유전복무 (COSL)	AWO (노르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규모 : 25억 달러('08년) ○ M&A를 통해 유전탐사 기술력 제고, 기업순위가 세계 12위에서 8위로 상승 ○ 과거 접근이 어려웠던 북유럽 및 북해 등 새로운 시장개척 측면에서도 전략적 가치 있음.
기술습득	베이징자동차 (BAIC)	SAAB (스웨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규모 : 2억 달러('09년) ○ GM의 스웨덴 자회사 SAAB 특정자산 인수를 통한 기술 도입으로 기술개발 기간을 최소 5년 단축할 수 있게 됨
	지리그룹 (GEELY)	VOLVO (스웨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규모 : 18억 달러('10년) ○ 중국의 해외 자동차 메이커 M&A 중 가장 큰 규모
브랜드 강화	안타스포츠 (ANTA)	BELLE (이탈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규모 : 7,800만 달러('09년) ○ M&A를 통해 고급 스포츠웨어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마케팅 채널을 확보, FILA가 보유하고 있던 홍콩, 마카오 소재 10개 매장까지 소유, 마케팅 영역을 크게 확대
	하이얼 (HAIER)	F&P (뉴질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규모 : 2,500만 달러('09년) ○ 뉴질랜드 Fisher & Paykel 지분 20% 매입, 하이얼은 F&P 제품을 중국에 독점판매, F&P는 하이얼 제품을 뉴질랜드 및 호주에서 판매공급
사업 다각화	주저오 난처스다이 (CSR Times Electric)	DYNEX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규모 : 1억 위안('08년) ○ 고속철 부품 및 솔루션 기업인 난처스다이 M&A를 통해 반도체 R&D 및 생산 단가를 크게 줄임
	시페이항공 (XAC)	FACC (오스트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규모 : 1억 유로 ('09년) ○ XAC는 홍콩 ATL과 함께 FACC 지분 91.2% 인수(중국 항공업계 사상 최초 해외 M&A) ○ M&A로 항공기 내외장부품 생산영역 확대

자료 : KOTRA, “중국의 해외투자 동향 및 중국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FDI Theme Report 10-007, 2010. 7. 12, p. 2.

중국의 해외투자 목적은 주로 자원 확보와 선진기술의 습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중국과의 문화관습이 유사한 홍콩 등의 화상문화권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은 편이다. 또한 2008년 중국의 해외투자 금액 가운데 국영기업에 의한 투자비중이 64%를 차지할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주요 투자업종으로는 임대·비즈니스서비스업 및 금융업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투자유형별로는 그린필드형보다 M&A형 투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는 중국의 해외투자는 총 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해외투자는 중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부분의 해외 그린필드형 투자는 거의 없는 반면 자원개발, 기술습득, 브랜드강화 및 사업다각화 등 중국의 비교열위 부문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따라서 해외 M&A형 투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2008-2009년 사이 중국의 투자목적별 해외투자 주요 사례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2. 중국 직접투자정책 변화의 특징

해외직접투자정책과 함께 외국인직접투자정책 역시 중국경제의 구조개선을 위한 산업정책과 연계되어 있다. 중국의 FDI 정책은 고부가가치의 기술집약 산업과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차세대 성장동력을 유치하고 금융, 유통 등 서비스 부문의 점진적 개방을 통한 산업고도화를 도모해나간다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별로 과잉투자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동부연안지역에 대해서는 산업구조조정 및 고도화를 도모하되 중서부지역에 대해서는 동부지역으로부터 밀려나는 노동집약산업을 유치해나간다는 투트랙 접근법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중국의 외국인투자제도는 이와 같은 정책적 기조에 따라 경상거래 부문의 외환자유화를 도모하고 있지만, 자본거래, 특히 해외차입자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한을 두고 있다.²⁾

- 등록자본의 100% 완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과실송금 제한
- 기업소득세를 2008년부터 내외국인 차별없이 25%로 통일 적용
- 노동계약법과 노동중재법 실시
- 토지사용권 취득은 현 정부 이상의 토지관리 부문으로부터 인가 필요

2) Invest in China(<http://www.fdi.gov.cn>) ; 중국국가통계국(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 <http://www.stats.gov.cn>)

2010년 4월 중국은 ‘외국인투자 신(新)규제안’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외국인투자 선별 유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자이용 개선에 관한 국무원 의견’을 담고 있다.³⁾ 즉, 중국은 개혁 개방 이래 적극적인 외자유치를 통해 산업 업그레이드와 기술진보를 추진해 왔으며, 외상투자기업은 국민경제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하였음을 인정하고, 향후 외자사용품질과 수준을 제고시키고 외자사용이 과학기술 창조, 산업 업그레이드, 지역조화 발전 등을 위해 새로이 ‘외자이용개선에 관한 국무원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또한 개방 초기의 맹목적인 외자유치 및 확장 정책에서 향후 첨단 제조업, 현대 서비스업, 신에너지 및 친환경산업에 대한 투자 등 선별적인 외자유치로의 정책 전환을 시사하고 있다.⁴⁾

<표 6> 중국의 연도별 해외투자(flow) 현황

(단위 : 억 USD)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합계	55.0	122.6	211.7	265.1	559.1
(금융)직접투자	-	-	35.4	16.7	140.5
(비금융)직접투자	-	122.6	176.3	248.4	418.6

자료 : 중국상무부(금융업 해외투자는 2006년부터 통계 집계)

최근 중국의 직접투자 정책에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정부는 직접투자의 인허가 및 투자환경 변화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직접투자 정책의 구조변화를 촉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글로벌 M&A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대중국 투자환경 및 정책적 변화가 가속화되는 한편으로, 2009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에 따른 대중국 FDI는 감소한 반면, 취득가능한 해외 자산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하면서 이에 따른 정책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외국자본 유치에 대한 중국의 긍정적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지만 투자의 양보다는 질을 우선하면서 사업고도화와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의도하는 방향으로 FDI 정책에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즉, 중국정부는 “양보다 질” 추구 지속, 중서부지역 투자 장려, 외환시스템의 개선, 투자방식의 다양화, 관련 행정의 간소화 및 분권화 등을 특징으로 한 경제구조조정 수단으로 FDI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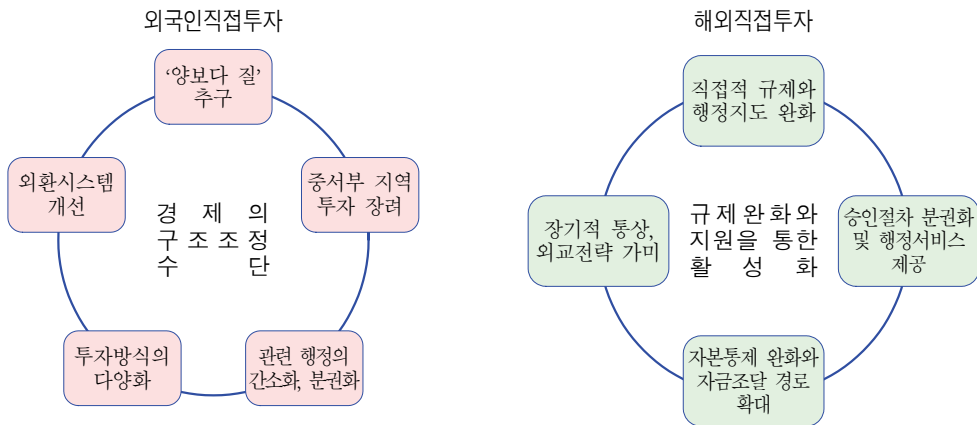
해외투자에 있어서는 외환보유고의 자산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해외 주요 자산 및 기업을

3) 중국 국무원, 國發[2010]9号, 2010. 4. 13.

4)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투자정보’, 2010. 7. 6.

5) 윤상하, “중국의 최근 FDI 정책 변화와 의미”, LG경제연구원, 『LGERI 리포트』, 2010. 7. 7, p. 17.

확보함으로써 정부 주도로 서비스 부문 또는 신에너지 산업 부문 등 비교열위 분야를 강화하고 이를 미래성장동력으로 삼는다는 데에 정책적 의미를 두고 있다.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아직 규모 면에서는 미국이나 EU 등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지만 2000년 이후 급증하고 있다. 이는 중국 내 자본축적이 진행되면서 해외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막대한 차이나 머니가 위력을 발휘하면서 글로벌 무대의 주요 산업 부문에서 큰 손으로 부상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윤상하, “중국의 최근 FDI 정책 변화와 의미”, LG경제연구원, 『LGERI 리포트』, 2010. 7. 7, p.19 & p.23.

[그림 3] 중국 직접투자의 정책 특징

한편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정책은 1999년 저우추취(走出去)를 천명한 이후 직접적 규제와 행정지도 완화, 승인절차 분권화 및 행정서비스 제공, 장기적 통상관계 및 외교전략 부가, 자본통제 완화와 자금조달 경로 확대 등과 같은 특징을 보이며 규제완화 및 지원을 통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Ⅲ. 중국자본 유치전략의 전제조건

1. 중국의 대한국 직접투자 비중 및 특징

1) 중국의 對한국 직접투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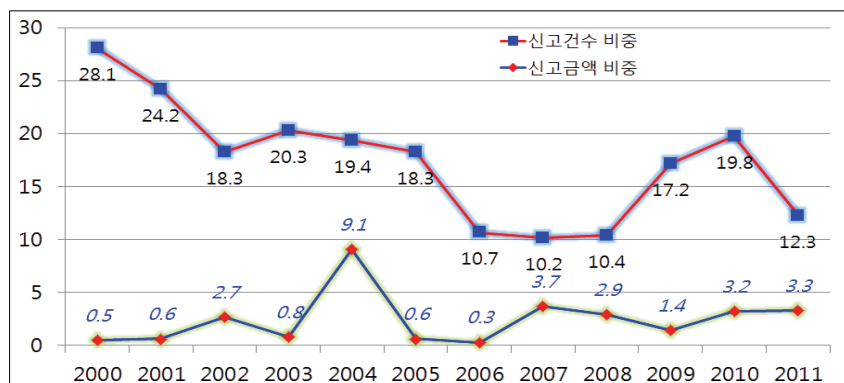
중국의 해외투자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對한국 외자유치의 규모와는 달리 對한국 해외직접투자는 극히 미미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2009년 중국의 해외투자 규모는 433억 달러에 이르지만 대한민국 투자는 전체 해외투자의 0.3% 수준에 해당하는 1억 6천만 달러에 불과하여 여전히 낮은 투자수준을 보이고 있다.

각각의 통계들이 불일치한 측면이 많지만 어느 통계를 보더라도 중국의 對한국 직접투자 규모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한국이 아직도 중국자본의 투자매력 국가가 되지 못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그러나 2010년 9월말 현재로서는 전년의 투자규모에 비해 높은 증가폭을 보이고 있어서 향후의 중국자본 투자유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한국의 對중국 FDI 유치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대 중반까지는 M&A 방식이 주를 이루다가 이후 국내도매업 또는 음식료업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2003년 BOE테크놀로지의 하이닉스 TFT-LCD 사업부 인수(1억 8,830만 달러)를 시작으로 상하이자동차의 쌍용차 인수, 산다게임즈의 액토즈소프트 인수 등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M&A 형태의 투자는 중국기업들이 M&A 투자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비자 획득이나 인건비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2005년부터 감소추세를 보이기 시작한다. 더욱이 중국이 한국기업에 대한 M&A를 통해 기대했던 기술력 확보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쌍용차 사태의 경우처럼 중국기업이 한국기술을 유출해 간다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중국의 투자는 위축되기 시작한 것이다.

2005년 이후 對중국 FDI 투자는 주로 10만 달러 이내의 국내 도매업이나 식음료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9년 중국으로부터의 FDI 신고건수 538건 가운데 98%가 소규모 도소매업이나 식음료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 KOTRA, “중국의 해외투자 동향 및 중국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FDI Theme Report 10-007, 2010. 7. 12, p. 31.

[그림 4] 한국의 FDI 유입 중 중국의 투자비중

〈표 7〉 중국의 對한국 직접투자 현황

2008년		2009년		2010년 1-9월	
투자건수	금액	투자건수	금액	투자건수	금액
389건	3억 3,643만 달러	538건	1억 6,050만 달러	526건	3억 3,026만 달러

주) 투자건수와 금액은 투자신고 기준
자료 : KOTRA

최근에는 태양광·IT 관련 업종 등 고급 기술력을 요하는 산업의 M&A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기도 한다. 2009년 9월말까지 이루어진 중국자본 유치 실적 3억 3천만 달러 가운데 2억 5천만 달러가 중국의 태양광업체인 기가솔라의 단일 투자건에 해당된다. 그러나 동 회사는 보조금과 세금감면 등 혜택을 기대하고 투자를 추진하고 있지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보장하는 현금보조를 지급하는 사업범위를 동법 시행령에서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상태로 전해지고 있다.

2) 중국 해외투자의 특성

중국의 해외투자와 한국 FDI 정책의 부합성 측면에서 중국의 해외투자 규모는 크지만 한국의 FDI 정책과는 미스매치를 보이고 있다. 우선 투자목적과 관련하여 중국의 해외투자는 자원확보와 선진기술 습득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자원확보를 위해 아프리카나 중남미 지역에 대한 ODA와 인적 교류 등의 외교적 노력에 공을 들인다거나, 국부펀드와 국영기업을 앞세워 선진 부품기업이나 차세대 성장기술 보유기업들을 사들이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한국의 투자유치 정책적 목표인 선진기술 확보, 산업구조 고도화와는 상충되고 있다.

투자지역 측면에서도 중국은 내륙과 인접해 있고 문화적 관습이 유사한 아태지역 화상문화권이 주요 투자대상지역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홍콩, 싱가포르, 마카오 등에 대한 중국의 투자가 총 투자액의 65.6%(스톡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화상문화권 중심으로 투자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투자업종별로 보면 중국은 임대·비즈니스서비스업(38.8%), 금융업(25.1%), 도소매업(11.7%), 광산(10.4%)에 대한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투자유형 측면에서도 그린필드형 투자보다는 M&A형 투자가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에서 한국의 FDI 정책과는 방향을 달리 하는 투자패턴을 보이고 있다.

〈표 8〉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특징 및 한국의 희망 유형

구분	중국의 해외투자 유형	한국의 iFDI 희망유형	비고(중국 oFDI 특징)
투자목적	자원확보, 선진기술습득	고도기술 확보, 선진 경영노하우 습득	자원확보, 신기술보유기업을 저가인수하여 고속성장 발판 마련
투자지역	화교문화권	-	홍콩, 싱가포르, 마카오 투자가 총투자액의 65.6%
투자업종	임대·비즈니스서비스업, 금융, 도소매, 광산 등	고부가 서비스, 신성장 동력 분야	서비스업 비중 70% 이상
투자유형	M&A형	Greenfield형	M&A형이 전체 해외투자의 54%, M&A 투자 중 국영기업 비중이 80% 이상

자료 : KOTRA, “중국의 해외투자 동향 및 중국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FDI Theme Report 10-007*, 2010. 7. 12, p. 28.

3) 대한민국 투자사례와 문제점

중국은 2000년대 이후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경제무역협력단지(境外經濟貿易合作區) 추진으로 중국기업의 해외진출(走出去)을 더욱 확대해나가고 있다. 해외경제무역협력단지는 중국정부(상무부)가 허가지원하고 기업이 설립·운영하는 해외단지로 생산, 물류 및 서비스의 전체 또는 일부 기능을 포괄하고 있다. 2006년 중국 상무부는 ‘해외경제무역협력단지’ 건설 방침을 공포한 후 2007년말 현재 12개 단지를 허가하고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향후 50개의 해외경제무역협력단지를 건립하겠다는 방침을 수립하였다. 동 협력단지로 지정되면 중앙정부는 2-3억 위안의 재정지원과 해외진출기업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20억 위안까지 대출해주는 자금지원 정책을 담고 있다. 동 사업은 특정의 모델 없이 사업기업의 계획에 따라 다양하게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음의 세 가지 모델을 따르고 있다.⁶⁾

〈표 9〉 투자유형별 특징 및 사례

구분	유형별 특징	투자 모델 사례
전문경영형	대기업 중심의 전문화된 산업단지	하이얼-파키스탄협력단지, 러시아우수리스크 협력단지 등
자원개발형	현지 자원개발 목적의 협력단지	아프리카 동광 자원 개발목적의 잠비아 협력단지 등
특화산업형	중국의 전통특화산업에 의거한 협력단지	모리셔스의 텐리 협력단지 등

이에 따라 우리나라 무안에 한중경제무역협력단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서 환황해경제권 형성에 밝은 전망을 안겨 주었다. 동 단지에 진출하려는 중국 기업이 매우 많고 이를 위한

6)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전략 변화 : 해외경제협력단지 확대”, 2008. 2, p. 6.

중국 지방(기업) 간 경쟁도 매우 치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과 정부·관계기관은 변화에 따른 기회를 적극 이용하는 동시에 위협(threat) 및 위험(risk) 가능성에 적극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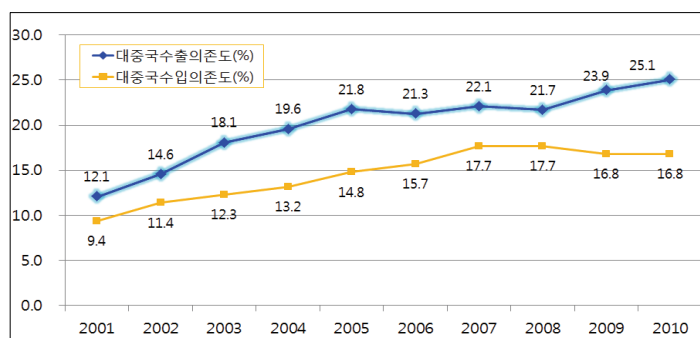
첫째, 기회의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은 중국의 해외경제무역협력단지 추진을 중국계 기업 투자유치 기회로 적극 활용하는 한편, 환황해경제권의 가시화에 주목하고 중장기전략을 수립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위협(threat) 및 위험(risk)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기술 유출 방지에 노력하는 동시에 ‘made in China’를 넘어선 ‘made by China’와의 경쟁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이처럼 한국의 한중국제산업단지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중국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국기업의 對한국 해외투자 목적 및 기대효과
○ 한국 내 완제품 생산에 따른 “made in Korea” 효과로 원활한 제3국 시장 진출 가능
○ 운송비(물류비) 절감. 한국(무안)에서 미국 내 주요 지역으로 논스톱 항공 가능
○ 선진기술 습득
○ 선진적 환경에서의 인력 훈련
○ 미래 성장시장 중 하나인 한국의 내수시장 진출
○ 한국을 주요 제품의 테스트 베드(test bed)로 활용 등

자료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전략 변화 : 해외경제협력단지 확대”, 2008. 2, p. 11.



자료 : <http://www.kita.net>(한국무역협회) 통계 및 외교통상부 자료를 발췌 작성

[그림 5]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 의존도

이처럼 중국기업의 대한국 해외투자 기대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으

로 인하여 효율적인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국내 실물경제 위축 및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국내 건설사의 지급보증(책임준공) 및 PF 조달의 어려움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변화에 따른 단계적 개발방식 채택으로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으며, 한국정책금융공사와의 금융자문계약 체결을 통하여 새로운 돌파구의 마련이 시급하다.

둘째, 외국인 노동자 쿼터 제도개선에 대한 중국측의 요구사항이다. 한국 근로자의 높은 인건비로 인하여 중국기업은 자국의 노동자를 선호하고 있는 입장이다. 따라서 외국인 고용 특례제도의 탄력적 운용을 위한 관련부처와의 지속적 협의가 필요하다.

셋째, 외국인투자지역 중복지정에 대한 중국측의 요구가 있다. 그러므로 중국측 입주기업 확정 시 관련부처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외국인투자자의 유치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한중 양국 간 개발방식의 차이로 인한 의견 상충이 늘 상존하다. 중국은 정부주도로 한국은 민간주도로 개발 산업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개발 방식의 차이를 인정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할 수 있는 이해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언어 및 문화차이에 의한 문제이다. 각종 계약서, 문서 및 법률에 대한 이해의 차이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양국의 법률자문이 가능한 국제로펌 선정을 통해 상호신뢰를 구축하여야 한다.

2. 중국자본 유치전략의 전제조건

세계 제1의 수출규모와 시장규모, 그리고 외국인투자 대상국에 이어 세계 제2의 생산규모를 자랑하는 중국은 이제 또다른 부문의 챔피언으로 '세계 제1의 해외투자국'이 될 전망이다. 중국은 이미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 기록과 더불어 2006년 세계 최대 규모의 외환보유국 지위에 등극하였다. 이후 세계 1위의 외환보유국 지위를 굳건히 지키면서 2011년 6월말 현재 약 3조 1,975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해외투자 여력이 세계 최강국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해외의 시각은 항상 양립되는 견해가 있다. 즉, 2010년 상반기 5조 달러를 넘어서서 일본을 밀어내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자리에 올라선 중국을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기준으로 접근할 것이냐, 아니면 겨우 4,000달러 수준에 도달한 1인당 소득(GDP per Capita)을 기준으로 중국문제에 접근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가 전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자본 유치 전략은 당장 이와 같은 현실적 문제에 부딪치게 됨으로써 획기적인 대안수립이 곤란해진다.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을 우선적으로 극복하지 못한다면 중국자본 유치 전략은 어떠한 경우라도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첫째, 투자는 전적으로 ‘신뢰’를 전제로 한다는 단순한 진리가 이 시대에도 유효하다는 것이다. 아쉽게도 한중 간 경제문제에는 역사적 사실과 다양한 현실적 사건들로 인하여 신뢰가 상당 부분 하락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한중 간의 경제관계는 상호보완적이고도 협력적인 수준에 크게 미흡한 상태에서 양국 간 무조건적 경쟁관계로 발전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양국 간 ‘신뢰’를 전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 실정이다.

둘째, 한국경제의 경쟁력 자체가 해외투자의 판단기준이 되는 시대라는 점이다. 투자를 전제로 하는 각종 유인책들을 고려할 때 한국은 적어도 중국에 대해서만큼은 매력적인 투자유인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0년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전년에 비해 3단계 하락한 상황이다. 국가경쟁력 하락의 의미는 투자 부문이라 하여 별개일 수 없으며, 국가경쟁력 수준 그 자체가 투자유인책으로 작동하고 있는 시대가 현대사회의 특징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한국을 대신하는 중국의 대체투자처는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투자업종 또는 종목이나 투자규모, 투자방식 등 중국자본 유치에 관한 투자 협상력은 상당 부분 중국 측에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자본을 경시하거나 부정적 시각을 한국경제 마인드에 조금이라도 잠재해두고 있는 한 중국자본 유치를 위한 노력은 자칫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넷째, 중국자본 유치를 위한 전략의 시작은 기존 시장의 게임 규칙을 파괴하는 전략이어야 한다. 즉, 규칙 파괴자(rule breaker)의 관점을 가지지 않고, 기존의 정책적 프레임 속에 갇혀 있는 한 중국자본 유치는 투입한 노력만큼 성과를 기대하기 절대 불가능한 부분이라는 뜻이다.

다섯째, 반드시 중국자본에 의한 투자이어야만 할 업종이나 투자 아이템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즉, 한국경제가 필요로 하는 중국투자업종에 있어서 절대적인 분야는 없다는 뜻이며, 중국 역시 한국에 대한 투자에 집착할 종목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차이나머니가 한국으로 많이 유입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간접투자이다. 간접투자의 수익모델은 직접투자의 그것과는 확연히 다르며, 주식 및 채권투자를 주로 하는 중국의 해외간접투자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에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여섯째, 중국의 각 성별 투자유치 전략이 필요한 이유를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중

국 지역 전역에 대한 전략은 對중국 거시전략이 될 수밖에 없다. 즉, 해외에서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중국이라는 국가 하나를 대상으로 경제관련 전략을 전개할 것이므로, 중국 전역에 걸친 광활함에 매달리다 보면 지역별 특징을 복합적으로 담고 있는 경제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중국문제에 접근함으로써 궁극적인 전략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미시적 접근전략인 동시에 성별 특징을 제대로 반영한 접근전략으로써 중국 각 성별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4직할시 27개 성에 대한 투자유치 전략은 자칫 전략의 복잡성을 가중시키거나 혼란을 초래할 뿐, 중국 각 성별 해외투자 여력을 동일시하여 동일한 전략으로 접근함으로써 기대효과를 반감시킬 우려가 높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가령 한국의 입장에서 대중국 해외직접투자(outbound or outflow FDI)의 경우라면 각 성별로 정치경제 및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현지화 전략이 절대적으로 요구될 수 있으나 반대로 중국자본 유치(inbound or inflow FDI)의 경우라면 이미 ‘중국’이라는 국가별 차별 요인을 반영하였으므로 이를 다시 각 성별 대상의 차별화된 투자유치 결정요인을 발굴하는 것은 비용-편익 측면에서 실효성이 그다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중국 각 성별 기업들에 대한 세부적 정보를 확보·관리함으로써 대중국 IR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둘 필요는 충분히 있으며, 각 성별 비즈니스 환경을 고려하여 이들 기업들에 대한 접촉의 폭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일곱째, 외형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인 투자유치 전략이 요구된다. 근래 보기 드물게 단기간에 경제강국으로 글로벌 무대에 등장한 중국을 과대평가하거나 중국자본의 힘을 맹신하는 상황에서 투자유치 노력을 경주하다가 외형적 투자 또는 부실 투자로 예기치 못한 국가적 손실을 경험해야 할 것이라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히 중국의 입장에서 해외투자에 대한 지원전략과 한국의 입장에서 외국인투자, 특히 중국자본에 대한 시혜적 조치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투자동기의 왜곡 및 부실투자로 야기되는 국가적 손실에 대해 예방적 차원의 조치를 강구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IV. 결 론

모든 경제 행위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동시에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긍정적 효과가 높다고 판단되면, 즉 편익이 비용보다 높다고 판단되면 그 행위를 선택하게 된다. 중국자본을 유치하는 경우에도 투자자의 기본 이익이 보장되어야 하고 동시에 한중 양국에

원원하는 성과로 귀결되어야 한다.

또한 중국자본을 유치하는 기본적 목적은 한국경제의 발전에 어떠한 형태로든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고, 동서양속에 배치되지 말아야 할 것임은 당연지사이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한국경제의 성장동력 발굴 유지에 필요한 재원 마련은 물론 성장둔화에 대비한 투자재원 마련에도 중국자본의 힘을 빌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동기를 모를 리 없는 중국자본의 입장에서라면 중국측 투자자의 전통적 투자이윤 추구 내지 한국과의 우호관계 유지 등 단편적 이유만으로 선뜻 대한국 투자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즉, 아무리 중국이라 하더라도 투자재원이 저절로 넘쳐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으며, 결국은 ‘주고받기’(give-and-take) 방식을 통한 ‘윈윈’(win-win) 전략을 전제해야 할 것이다.

중국자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아니라 중국경제에 대한 불안은 항시 잠재하고 있다.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이나 최대 수입시장인 현 상황에서는 중국경제의 불안정성이 곧 한국경제의 불안정성을 의미한다. 그 이유를 찾자면 ‘중국위협론’이라는 세계적 인식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한국에게 크게 다가오는 말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중국효과’ 등을 포함한 각종 차이나 리스크(China risk) 자체가 한국의 힘으로는 해소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국경제에 유달리 높은 압력이 되고 있는 ‘중국위협론’에 지혜롭게 대처하고 한국경제의 대중국 의존도를 완화하는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중국자본을 유치하는 일이다. 중국자본 유치 전략의 목적성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 두고 문제인식에 접근해야 한다. 중국자본 유치 전략의 목적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보기로 한다.

첫째, 한중 간 무역과 투자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중국자본의 대한국 투자 확대이다. 한국경제에서 수출과 수입은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큰 항목이다. 대중국 무역의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투자 확대 방안을 선택할 수 있고, 이에 중국자본 유치 전략의 목적성을 부여할 수 있다.

둘째, 한중 경제결합도 증진을 통해 정치경제적 안정성을 강화해나갈 수 있도록 중국의 투자확대를 유인하는 것도 중국자본 유치를 위한 전략의 목적이 된다. 중국과의 교류가 단절될 수록 한국경제에 불이익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시장협소 및 자원빈국’이라는 한국경제의 태생적 한계 때문에 비롯되는 현상일 것이다. 따라서 중국자본 유치는 역발상으로 중국 교류 확대를 위한 투자방편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셋째,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효율적으로 유지 발전시키는 데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역시 중국자본 유치 전략이 요구된다.

결국 중국자본의 투자유치를 극대화하는 데에 전략의 목표가 있음에도 투자유치의 필요성은 중국의 해외투자 요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측 요인에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한중 간 투자협상력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협상력이 취약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전략의 기본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 자본의 증가성 문제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국내의 투자자본이든 해외로부터 국내로 유입되는 자본이든, 중국자본이든 아니면 다른 나라의 자본이든, 투자자본의 가치는 모두 동일하다는 점이다. 즉, 국내 투자부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그 자본의 출처를 따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뜻이 된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국자본 유치 전략의 고민에 부딪치게 된다. 즉, 중국자본 유치를 위한 별도의 전략이 필요한 지, 아니면 동일한 가치를 전제한 외국자본 유치 전략의 일부분으로 중국자본 유치에 대한 별도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지의 고민을 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결국 우리는 다시 한 번 중국자본 유치의 목적성을 상기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 목적성을 새롭게 획정하지 못한다면 중국자본 유치 전략은 자칫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한국으로 유입되는 해외자본은 일단 자본유입이 이루어지면 그 자본들이 가지는 가치는 모두 동등해지므로 국내기업들의 투자 역차별 논쟁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국내의 투자여력이 높다거나 경제상황의 악화로 국내기업들을 부양해야 할 형편이라면 더 심각하게 투자자본의 증가성 논쟁에 휘말릴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미국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든 중국으로부터 유치하든, 선진국으로부터 유치하든 후발개도국으로부터 유치하든 해외자본이 일단 유입되면 모두 풀(pool)장에 섞여 있는 물과 같이 똑같은 가치의 자본이 되는 것이다. 이는 해외자본을 유치함에 있어서 외국인직접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는 정책이나 국가별로 차별적인 투자유치 전략이 불필요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왜 중국자본을 유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의 당위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한 투자유인을 쉽게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투자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는 점에서 고용측면, 기술이전, 지리적 강점, 부동산 가격상승의 기대 등 투자요인별로 크게 매력을 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은 아닐까?

아쉽게도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유인의 요인들이 많지 않다. 좀 더 심한 표현을 빌리자면 중국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강점요인들이 아예 없는 형편이다. 만약 그 반대로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투자 유인책들이 한국에도 있다면 한국의 고민은 그다지 깊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까지 한중 양국 간 직접투자 불균형, 즉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보다 중국의 대한국 직접투자 규모가 월등히 작았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자본 유치의 목적이 한국경제의 글로벌 역동성을 높이는 데 있음에도 중국자본의 투자 유인책이 없다하여 방관만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별도의 중국자본 유치 전략이 요구되고, 정부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대경,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시장지향성, 현지화, 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제12권 제2호, 2010. 6, pp. 161-182.
- 고성, “중국의 유동성 확대에 따른 리스크 요인 점검”, KDB, *China Issue*, 2009. 9.
- 권영철, “수출업체와 외국바이어 간 관계특유투자 결정요인”,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제11권 제1호, 2010. 2, pp. 99-117.
- 김경애·김재범, “CEO국적이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익성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제34권 제2호, 2009. 4, pp. 23-49.
- 김경애·김재범, “산업별 차이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제35권 제1호, 2010. 2, pp. 103-130.
- 김기흥, “외국인직접투자(FDI)로부터 무역의 수평적 및 수직적 기술 파급효과와 요인 분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제11권 제1호, 2010. 2, pp. 119-147.
- 김승원, “외국자본유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금융경제연구원 『금융경제연구』 제421호, 2010. 4.
- 박병일, “국제기업 자회사의 모기업 기술습득 결정인자에 대한 연구 : 외국인 합작기업, 국제인수 및 완전자회사 간 상호비교”,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제35권 제2호, 2010. 4, pp. 84-114.
- 백은영, “우리나라 대 중국 현지 해외투자기업의 수익성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제34권 제2호, 2009. 4, pp. 227-246.
- 신호윤, “중국의 외자유치 및 해외투자 정책과 시사점”, 『금융연구』, 2007. 3.
- 윤상하, “중국의 최근 FDI 정책 변화와 의미”, LG경제연구원, 『LGERI 리포트』, 2010. 7. 7.
- 윤영선·김용덕, “한국 외국인투자정책의 투자인센티브제도 및 결정요인 분석”,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제11권 제3호, 2010. 8, pp. 163-194.
- 이성봉·윤미경, “외국인직접투자의 진입유형이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산업연구원, 2006. 8. 20.
- 정진섭·문희창, “한미 FTA와 한국의 FDI 유치전략”,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제33권 제3호, 2008. 6, pp. 185-216.
- 기획재정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 Service-PROGRESS I”, 2008. 4. 28.
- 기획재정부, “세계은행의 2010 기업환경 평가(Doing business)결과”, 2009. 9. 9.

- LG경제연구원, “중국의 최근 FDI 정책 변화와 의미”, 2010. 7. 9.
- KOTRA, 「중국 위안화절상이 국내 FDI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10. 4. 6.
- 산업연구원, “외환위기 10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의 특징과 시사점”, 『e-Kiet 산업경제정보』 404호(2008-30), 2008. 6. 23.
- 삼성경제연구소, 「MICE 산업의 기회와 도전」, SERI 경제포커스(제281호), 2010. 2. 23.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해외 바이어들이 바라 본 우리 수출경쟁력 현황”, 2009. 4.
- 한국은행, “아시아 지역에서의 중국 효과”, 2010. 4. 22.
- Adlung, Rudolf, *Services Liberalization from a WTO/GATS Perspective: In Search of Volunteers*, WTO Working Papers ERSD-2009-05, February 2009.
- Amiti, Mary, “Location of Vertically Linked Industries: Agglomeration versus Comparative Advantage,” *European Economic Review*, Vol. 49, No. 4, 2005, pp. 809-832.
- Amiti, Mary and Beata S. Javorcki, *Trade Cost and Location of Foreign Firms in China*, IMF Working Paper, WP/05/55, 2005.
- Medvedev, Denis,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and Their Role in World Trade*, World Bank, WPS 4038, Oct. 2006.
- Roy, Martin, *Endowments, Power, and Democracy: Political Economy of Multilateral Commitments on Trade in Services*, WTO Working Papers ERSD-2009-07, September 2009.
-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PROMOTING FOREIGN INVESTMENT IN TOURISM*, Investment Advisory Series : Series A, number 5, 2010.
- WTO, *Opening Markets for Trade in Services: Countries and Sectors in Bilateral and WTO Negotiations*, edited by Juan Marchetti and Martin Roy, 2009.
- <http://www.doingbusiness.org>
- <http://fdimarkets.com>
- <http://www.oecd.org>

ABSTRACT

China's Global Investment Policy and FDI Precondition
for China Money in Korea

Moon-Suh Park* · Mea-Jung Kim**

This paper is aimed to prepare some policy-measures which is helpful for China Money FDI in Korea by analysing FDI-related data and political strength and weaknes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studying fundamental preconditions required for Korea's China Money FDI strategies. As the result of research, key preconditions found ou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because China-Korea economic relationship is largely insufficient in a complementary view as well as in a cooperative state level, Korea should remove the threats in advance that could lead two countries to unlimited competition, and then expand to a relationship of trust between China and Korea.

Second, Korea, at least from the perspective of China, may not be an attractive investment destin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take advantage of Korea's FTA-expansion-strategy opportunities such as Korea-US FTA which has entered into force recently.

Third, because China always has a lot of alternative investment opportunities among world instead of Korea, so Korea should not overlook the fact that China has the bargaining power in large part related on the investment conditions in Korea, such as investment field, investment size, how to invest China Money to Korea, etc.

Fourth, if Korea's FDI policy is trapped in the existing rules of the political frame, and moreover Korea can not have the role of rule breaker, it will be difficult to expect Korea's China Money FDI results compared to those efforts.

Fifth, if Korea will execute China Money FDI strategies in the context of overestimating the China Power or China Money, it should be noted that Korea may have unexpected losses lead to a national by reason of outward and quantitative investment or bad investment.

Key words : China Money, Chinese Capital, FDI Strategy, China, FDI, Investment

* Professor, Division of Global Business, Howon University (mspark@howon.ac.kr)

** Professor, Division of Global Business, Dongguk University (mjpower7@dongguk.edu)